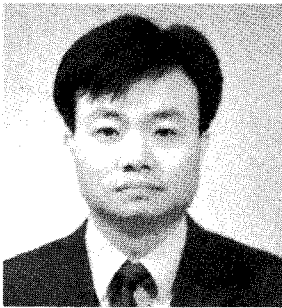


산업구강보건관리



산업구강보건협회의회 사무국장
조 영 수

1. 구강건강진단

현재 보건예방사업의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검사'는 비록 개선할 점이 적지 않으나, 이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구강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면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이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치과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구강건강진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강보건관리를 기획, 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연2회 실시하는 산취급 근로자의 '치과검사'는 직업성 치아부식증 유무를 판정해야 하는만큼,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치과의사에 의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구강보건교육

북구권의 모 자동차업체에서는 교육모임, 소책자 배부, 영화상영, 구강보건 전시회 등 캠페인을

별인 결과, 근로자들의 구강보건행동, 구강위생, 치은건강도를 개선하였고, 또한 일부 근로자를 구강보건교육자로 선정, 훈련시킨 후 동료 근로자와 함께 구강병 예방을 주제로 교육, 토론을 반복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1995년 9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 연 2시간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건교육의 내용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산 등의 화학물질, 설탕, 중금속 등 유해작업환경에 폭로된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환경과 직업성 구강병의 연관성 및 구강건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강의방식과 근로자들간의 토론방식을 적절히 혼용하면서 팸플렛, 포스터, 비디오 상영, 대중매체의 이용 등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 치료 및 예방처치

스웨덴 모 조선소에서 사업장내에 치과진료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내원하면서 예방 및 보철처치를 시행한 결과, 구강위생상태 개선, 치석 감소, 치조골 상실의 감소, 치료필요율 및 구강병 발생율의 감소, 치아상실율의 감소 등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처럼 사업장마다 치과의료인력을 배치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사

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이미 외국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치과진료기관과 연결하여 정기검진과 예방치치,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을 병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 직장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치과진료시설도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 및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추진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내·외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보조인력을 통해 구강건강진단과 방사선촬영, 치석제거술, 잇솔질교육, 집단잇솔질사업, 치면연구전색,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보건예방사업에 규정되어 있는 '구강검사'도 이처럼 보건교육, 예방치치, 조기치료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배가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구강보건관리

이상의 '구강건강진단, 구강보건교육, 예방치치 및 치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속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제도하에서는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구강건강전문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 평가 및 개선, 회사 내 구강보건교육자료의 게시 및 반복교육, 작업장 내 잇솔질시설 구비 등 구강보건관리의 실질적인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국이나 사업주의 무관심, 인력부족, 근로자의 관심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점은 적지 않다. 사업주는 예방적 구강보건관리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작업능력 및 생산성 향상효과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배가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나 예방사업과 같이 현재의 여건에서도 실현가능한 효과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산업구강보건'은 근로자 구강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검사, 진단, 예방, 치료, 재활, 교육, 제도,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영국, 미국 등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근로자의 구강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에 치과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일본도 1920년대부터 직업성 치아부식증의 실태에 주목하였으며, 1973년 이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에 산업치과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산업구강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직업성 구강병을 유발하는 유해작업환경 및 작업공정의 개선, 법령의 정비 등이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다음으로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하는 작업에서 구강영역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인식하고 그 예방법을 습득,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을 정례화하여야 한다. 직업성 구강병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행위로는 보호구(마스크)착용 및 퇴근전 잇솔질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구강건강진단은 구강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게 해 줌으로써 의료비 절감의 효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근로자들의 구강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강보건 전문인력과 사업장 보건관리자들의 공동노력과 상호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Baum HB. Occupational diseases of the mouth. Den Cos 1934; 76-247-254.
Bernet J. Teeth and the worker. J Ind Hyg 1920; 1 : 546-549.

- Feaver GP. Occupational Dentistry : a review of 100 years of dental care in the workplace. Occup Med 1988; 3(1,2) : 41-43.
- Gupat BN. Occupational disease of teeth. J Soc Occu Med 1990; 40 : 149-152
- petersen PE. Evaluation of a dental preventive program for Danish chocolate workers. Comm Dent Oral Epidemiol 1989; 17 : 53-9.
- Reisine ST. Dental disease and work loss. J Dent Res 1994; 63(9) : 1158-1161.
- Schou L. Oral health promotion at work-sites. Int Dent J 1989; 39 : 122-128.
- Schour I, Sarnat BG. Oral manifestations of occupational origin. JAMA 1942; 120(15) : 1197-1207.
- 강신익. 직업성 구강질환의 발견과 대책.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2; 2(1) : 49-66.
- 고소영. 수도권 특정 산 사업장 노동자의 치질상시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3; 3(1) : 1-9
- 권종대, 김 종배. 작업환경중의 탄수화물이 근로자 영구치우식증의 발생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83; 7(1) : 73-80.
- 金文祚. 서울시내 某紡績工場 女勤勞員 口腔保健狀態의 30年을 隔한 比較.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5; 13(4) : 339-347.
- 김진숙.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구강내 증상.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2. 1(1) : 29-39.
- 김현덕. 산취급근로자의 치아부식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2.
- 김혜영. 동일 사업장에서 3년간 실시한 구강검진 결과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3; 3(1) : 10-30.
- 전동균. 사무금융직 노동자와 산업체 생산직 노동자의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2; 2(1) : 1-48.
- 조 영수. 제과/제빵업 종사자의 치아우식유병상태에 대한 조사연구(2).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3; 1(1) : 60-70.
- 천 용희, 권 호근, 문 영환, 노 재훈. 일부 산 취급 근로자의 치아산식증. 예방의학회지 1982; 15(1) : 83-87.
- 최덕형. 산업재해중 악안면 외상에 대한 고찰.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3; 3(1) : 71-83.
- 하용진, 이 광목. 축전지 제조공장 노동자들의 황산폭로에 의한 치아 산식. 가톨릭대학교 의학부 논문집. 1988; 41(1) : 69-75.
- 한영철. 근대이후 한국의 산업구강보건.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5; 4(1) : 1-26.
- 허진영. 산업구강보건의 효율적 관리 방안. 산업구강보건협의회지 1993; 3(1) : 31-40.
- 森本基. 齒牙酸蝕症に 關する 研究. 口腔衛生學會雜誌 1969; 19(4) : 6-27.
- 西村 鄭雄. 職場と 口腔の 疾病. 勞動の 科學 1991; 46(10) : 8-11.
- 矢崎武. 産業齒科醫の 生き 延びる 道. 齒界展望 1984; 64(1) : 123-135.
- 津川惠子. 職業性齒牙酸蝕症에 關한 研究. 口腔衛生學會雜誌 1977; 26(4) : 56-72.
- 日本口腔衛生學會. 齒牙酸蝕症と 産業保健管理. 口腔保健協會. 1985
- 日本齒科醫師會. 齒科醫師の ための 産業保健入門. 口腔保健協會. 1994

